

K-water는 물환경이 더 건강해지도록 어떻게 개선하고 있을까?

기후변화로 물환경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
K-water는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물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ESG 경영 가치도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59

2023년 2월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water는 깨끗한 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확대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맑은 명품마을



ilovekwater

#kwater물환경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물환경을 검색하고
<kwater물환경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물환경

#수변생태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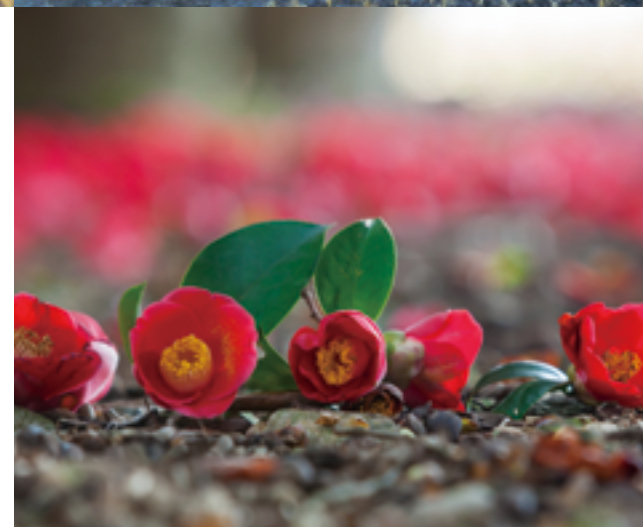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물환경을 검색
→ <kwater물환경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2월 25일
선물 발송일 3월 15일경

※ 3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주민자율관리사업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2 | Vol. 659



- 08 제로여행**
주상절리 비경을 품은 한탄강댐
지질 생태 도시, 연천
- 14 제로상점**
'회복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양주 <감성숲>
- 18 사람이 애쓰지(ESG)**
버려진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다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
- 22 지구보고서**
'삼한사미(三寒四微)'의 계절,
춥거나 공기가 탁하거나
- 24 친환경 지구여행**
장엄한 자연과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에라도르
- 28 두잇두잇**
조약돌에 그린 작품



“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버려지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30 건강처방전**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 32 수(水)타벽스가 간다**
봄날 같은 하루,
우리 함께 티타임을 가져요
- 36 숫자로 보는 K-water**
주민 손으로
건강한 물환경 만들기
- 38 K-water 리포트**
K-water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합니다



- 42 K-water ESG**
국민과 함께
모바일 수도물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다
- 44 어느 멋진 날**
가족으로 만든 지갑이 너무 예뻐요
낙동강유역본부 4명의 가족 지갑 만들기
- 48 마음상담소**
팀원들에 대해 물어보는
팀장님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K-water는 지역주민을
사업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물환경 개선은 물론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 50 퀴즈있수다**
수생태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 52 K-water 포커스 ①**
대한민국 물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
- 54 K-water 포커스 ②**
물산업 펀드로
국내 물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다
- 56 News**
- 58 수놓은 문화**
- 59 K-water SNS**
- 60 방울이와 DIY**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2월 1일
통 권 659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취재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상절리 비경을 품은 한탄강댐 지질 생태 도시, 연천

수억 년간 한 겹 두 겹 쌓여 이룬 풍경이 있다. 비와 바람에 깎이고 떨어져 나가며 만들어진 풍경도 있고, 부피가 팽창하며 갈라져 생긴 '틈의 풍경'도 있다. 일부는 휘어져 또 풍경이 되었고, 어긋난 채 오늘이 된 풍경도 있다. 모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한탄강의 지질 유산 얘기다. 연천군은 그런 한탄강의 유려한 협곡이 지나는 '지질 도시'이자 그 강에 기대어 초기 인류가 살았던 한반도의 뿌리다. 겨울이면 억고드름이 뾰족하게 솟고, 두루미가 날아들어 한층 신비스러워지는 연천군으로 '물 여행, 강 여행'을 떠나보자.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자연하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경기도 연천군은 강의 도시다. 남북을 경계 없이 흐르는 두 개의 큰 강이 이곳을 지난다. 하나는 북에서 흘러와 한강에 합류하는 임진강이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북에서 발원해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합수하는 한탄강이다. 임진강은 연천군의 서쪽 측면을 흘러 지나고, 철원군과 포천시를 지나온 한탄강은 연천군의 몸통을 구불구불 지나 서남쪽 끝까지 흐른다.

한탄강댐은 그런 한탄강의 종류에 지난 2016년 들어선 댐이다. 평소에는 물을 저장하지 않고 하천의 물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장마철에만 일시적으로 물을 저류해 유량을 조절하는 홍수 조절 목적의 댐이다. 그래서 이곳은 댐인 동시에 문이고, 닫혀 있으면 열려 있는 구조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댐은 총 11개의 수문을 갖췄다. 비상시 물을 흘려보내는 비상 여수로 5문과 홍수 시 댐 하류 방류량을 조절하는 상용 여수로 2문, 그리고 생태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배사관 2련과 생태통로 4문이다. 이 중 배사관을 평상시 물이 댐을 통과해 흐를 수 있는 무문식으로 설치해 한탄강이 댐 건설 이후에도 자연하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댐 600m 하류에 있는 한여울교에 서면 한탄강댐의 이 같은 친환경적 면모가 한눈에 드러난다. 한탄강 협곡과의 어울림도 꽤나 좋다.

주상·판상절리에 베개용암까지

한탄강은 어느 강과는 다른 특별한 과정을 거쳐 탄생된 강이다. 약 50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까지 평강군 오리산 일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화산 폭발로 형성됐다. 그때 뜨겁게 분출한 용암이 한탄강을 따라 낮은 지대를 메우며 임진강까지 흘러 거대한 협곡을 만들었고, 굳어진 용암 위로 다시 한탄강 물이 흐르면서 용암대지가 빗어졌다. 이후 오랜 세월 하천과 비, 바람에 침식되면서, 추가령에서 전곡리에 이르는 120km의 주상절리대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그 수려한 '시간의 묘기'가 다양한 형태의 지질 즉 주상절리, 판상절리, 습곡구조, 수평절리 등을 이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세계적 보물이 됐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2020년 제주도, 청송군, 무등산권에 이어 4번째로 지정됐다. 총면적 1,165km²로 연천군과 포천시, 철원군 일대의 지질명소 24개소를 아우른다. 이 중 10개가 연천군에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T 이야기



당포성

당포성은 고구려의 방어선 중 하나로 구축됐다. 약 13m 높이의 길쭉한 삼각형의 낭떠러지 위에, 토성과 석성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해 쌓아 토성의 부드러움과 석성의 단단함을 함께 갖췄다. 무릇 성이란 사방이 흰하게 트인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이다. 그 탁월한 전망 덕에 당포성은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군 인증 사진의 명소가 됐다. 보루 위에 선 팽나무 배경 구도가 특히 인기다.

☞ 주소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



전곡선사박물관

박물관에 애칭이라니 깜짝 놀랐다. '돌박'이라고 했다. 돌을 주인공 삼아 만든 박물관이라는 뜻이다. 대표 돌은 아슐리안형 석기라고 부르는 '양면 가공 주먹도끼'. 1978년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 돌 하나가, 세계 고고학의 역사를 바꾸고 유럽 중심의 구석기 지도를 바꾸었다. 당시로는 첨단으로 인식되는 석기 가공 기술을 프랑스 '아슐리안'뿐 아니라 '전곡리'도 가졌음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박물관에는 주먹찌르개, 굵게 같은 석기뿐 아니라 이곳에 살았던 초기 인류의 모형도 함께 전시돼 있다. 한반도 최고(最古)의 구석기 유적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연결돼 있다.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 문의 031-830-5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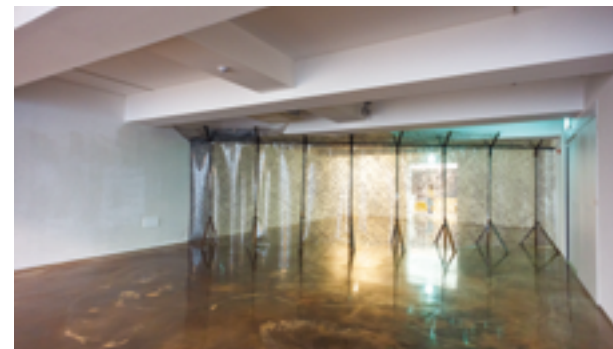
여울에 마련된 두루미관망대 또는 빙애여울 인근에 차를 잠시 세우고 두루미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운이 닿으면 우아하면서도 격조 있는 자태의 두루미를 꽤 여러 마리 만날 수 있다.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 자락에 있는 '역고드름 페터널'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연천군의 보물이다. 수정 같은 고드름이 터널의 바닥에서 불쑥 솟아나는데, 2~3cm 작은 것부터 1m 높이의 얼음 기둥까지 뻗뻗하다. 낙숫물이 지면에 닿자마자 결빙되거나, 지면과 지하의 물 사이 온도와 압력-에너지 차로 인해 지하의 물이 지표로 솟아올랐다가 얼어버리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감상 가능 시기는 12월 중순부터 2~3월까지이다. 다만 진입도로가 좁아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있다. 재인폭포와 아우라지 배개용암(포천시에 있지만 연천군에서 조망 가능), 전곡리 유적 토층, 좌상바위, 백의리층, 동막골 응회암, 차탄천 주상절리, 임진강 주상절리, 당포성 주상절리,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한탄강댐 6km 반경에 있는 4개소(재인폭포 ~ 백의리층 ~ 배개용암 ~ 좌상바위)가 한 루트로 묶여 탐방하기 좋다.

겨울에만 만나는 연천의 보물

연천군의 겨울은 두루미로 시작해 역고드름으로 끝난다. 뚜루뚜루~ 울며 두루미(재두루미, 흑두루미 포함)가 찾아 드는 때는 11월 쯤이다. 이때부터 두루미는 연천군의 민통선 안에서 울무 낙곡을 먹으며 겨울을 난 후 이듬해 3월경 시베리아로 돌아간다. 주요 서식처는 민통선 안 임진강의 장군여울에서 필승교까지 구간이다. 하지만 필승교는 통과가 쉽지 않은 구역이므로, 일반인들은 장군



연강갤러리

민통선 안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북단 갤러리다. 민통선 내에 건립된 최초의 예술 공간이기도 하다. 실내 전시실도 좋지만, 임진강 주상절리를 사진으로 담아낸 대형 파사드 작품이 외관을 빼곡하게 감싼 점이 인상 깊다. 옛 안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임진강 평화습지원'과 출렁다리로 이어져 있다. 민통선 출입에 필요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며, 군부대 훈련 등으로 불시에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군중로 885
문의 031-834-4100

찾아가GO, 체험하GO

협곡이 아름다운 연천 여행 스폿



에코스텝 1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잇는 높이 83.5m, 길이 690m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댐이다. 총 저수량은 2억 7천만 톤. 이는 임진강 상류에 있는 군남댐(7천만 톤)의 4 배로 팔당댐(2억 4천만 톤)보다 약간 크다. 2016년 완공됐으며, 댐 조망 다리와 오토캠핑장 등을 갖췄다.

에코스텝 2
한탄강의 유래와 생성과정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물에 대해서도 체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영상, 터치스크린, 시뮬레이션 등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큰어울자연놀이터의 열기구 체험과 큰어울리방놀이터의 워터드로잉 체험이 인기 있다.



'회복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양주 <감성숲>



지난 1월 10일, 전 지구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존층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뉴스였다. 인간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들 했다. 그 수많은 노력들 중 하나였을 양주의 <감성숲>을 찾았다. 경기 북부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숍인 <감성숲>은 숲과 지구, 그리고 사람의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치유에 목적을 둔 곳이다. 숲과 지구와 사람은 우리가 무엇보다 오래 벗 삼아 살아가야 할 것들이다. 어쩌면 그래서였겠다. <감성숲>의 각종 활동들이 보다 환경적이고 보다 생태적이었던 건.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함께' 환경을 이야기하는 공간

무릇 공간을 그 공간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도 배어들고, 취향과 애착도 스민다. <감성숲>도 그랬다. 잘 꾸며놓은 카페처럼 아늑한 공간의 이쪽저쪽이,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결들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경계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크고 길쭉한 3개의 테이블이 이것들을 정교하게 구획하는 듯했다. 제로웨이스트 숍은 그중 가장 깊어 아늑한 지점에 있었고, 여러 종류의 목재 제품과 명상에 쓰이는 상잉볼들이 남은 면을 존재감 있게 차지하고 있었다. <감성숲>의 오미정 대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관심 가는 것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 둔 것인데, 이게 다 감성숲"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감성숲>은 회복과 치유를 콘셉트로 한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오랜 시간 숲을 통한 치유교육을 하던 오미정 대표가 자연과 숲, 힐링과 명상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펼칠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문을 열었다. 여기에 숲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환경 계열 제품이 제로웨이스트 숍의 형태로 1년 뒤 <감성숲>에 추가됐다. 오미정 대표는 "숲과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다 보니 환경을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일상으로 넣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후 플라마켓을 비롯한 여기저기에 환경문제를 접목하다가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숍을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감성숲>에는 현재 천연수세미를 비롯한 소프넛, 소창 행주, 스테인리스 빨대, 대나무 칫솔, 고체 치약 등 30여 가지의 친환경 제품이 구비돼 있고, 목재로 만든 주방용품도 20여 종 갖추어져 있다. 추후 제로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프리에 도전할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대부분 개인 판매용보다는 교육용 패키지로 선보이게 된다고 한다. 오미정 대표는 또 "코로나 19 이후 전 국민이 환경문제에 주목하며 자연스럽게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 숲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며 "처음 숲을 열었을 때보다 숲을 찾는 손님이 늘고, 함께 환경을 이야기할 이웃이 더 많이 생기고, <감성숲>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어 기분이 좋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숲에서 키웁니다, 환경 감수성

<감성숲>의 환경운동은 <감성숲>이란 하드웨어적 공간보다 공간을 벗어난 활동인 경우가 많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중심으로 한 환경 인식 개선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숲과 환경운동을 접목한 교육 활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수세미를 씨앗부터 키워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수세미가 지구환경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거나, 플라스틱 화분 없는 물이끼 행잉을 만드는 체험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설명하는 형태다. 오미정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아이들(혹은 어른들)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 보고, 실제 생각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숲에서 키우는 그런 소소한 환경 감수성이 추후 각자의 생활을 친환경적·친생태적으로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숲>의 공간 한편에는 '숲의 씨앗'들이 줄지어 있다. 씨앗들이 발아되기를 기다리는 종이라고 한다. 씨앗은 곧 나무이고 숲이다. <감성숲>의 다양한 환경운동들 또한 지구의 회복을 돕는 착한 씨앗 중 하나일 것이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지구도 치료해야죠. 그 치료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성숲> 오미정 대표



숲을 통한 치유가 <감성숲>의 주요 활동인데요. 언제 숲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원래 유아교육 '발도르프'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처음 '숲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즈음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 치료 삼아 숲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아 알레르기가 싹 사라졌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후 숲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숲 활동가'로 전업했죠.

현재 구비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천연수세미랑 소프트(무환자나무 과피)인데요. 인터넷상에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구매 후 바로 쓸 수 있어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프트 열매는 물에 희석하면 바로 세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재사용도 가능하고, 다 쓰고 나면 화분에 비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추천합니다.

앞으로 <감성숲>의 환경운동은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까요?

요즘 경기 북부지역의 뜻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지역,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여행이 콘셉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여행이라서, 우리가 작성한 '공정여행 십계명' 안에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같은 친환경적·친로컬적 여행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벗어나 외지인을 지역으로 끌어와 지역의 이야기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껏 기대 중입니다. 3월 즈음 시작할 예정이니, 여행 한 번 오세요.



(감성숲)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85-19
 문의 070-7814-0133

TOUCH 4GOOD

버려진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다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수막, 사람들이 마시고 버린 페트병 등은 용도를 다하면 쓰레기로 전락한다. 하지만 이 버려진 쓰레기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한다면 충분히 쓰임새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쓸모없이 버려진 제품에서 '의미 있는 쓰레기'로의 변화, 업사이클링이 이룬 마법이다.

글. 이용규 사진. 김범기



66

우리가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은 3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50종이 넘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특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나 과학 기술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99

버려지는 물건에 담긴 가치

우리나라 분리수거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인 반면 실제 재활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정에서 세세하게 분리 배출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쓰레기는 땅속에 묻힌 채 수 백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업사이클 전문 기업 터치포굿은 이처럼 버려지는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 넣어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작한 업사이클링 1호 제품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에코백이었다.

“전국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의 양은 엄청나지만, 대부분 잠시 쓰고 나서 그대로 소각 처리됩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데다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돼 이를 재활용하면 환경보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박미현 대표와 뜻을 같이 한 대학생 몇몇이 고심 끝에 현수막을 재활용한 가방을 제작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2008년 10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이 탄생했다. 너무 쉽게 쓰고 버려지는 소비환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박미현 대표는 버려지는 자원들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터치포굿’이라는 회사 이름을 붙였고, 버려지는 물건에 가치를 담고자 했던 그 마음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

다양한 소재연구를 통해 사업 영역 확대

터치포굿이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자리 잡게 한 효자 상품이 현수막을 재활용한 가방이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친환경 세제로 세탁한 후 엄격한 공정을 거쳐 가방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바느질 하나부터 전 과정이 100% 국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품의 질이 우수하고 같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어 독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부터 과정,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환경적인 가치나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제품이라는 것이 박미현 대표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어린 청년들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현수막을 기부해 다시 제품으로 사겠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선거철에는 각 후보별로 선거 현수막을 모아 리미티드 에디션 제작하기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사용하고 철거된 나무를 활용해 램프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립스틱을 활용한 크레파스나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만든 스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터치포굿은 버려진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페트병으로 스카프나 파우치, 담요 등을 제작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업사이클이 가능한 700개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가운데 유리, 금속, 나무 등 150여 개의 소재를 재활용한 제품을 제작 중에 있다. 또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은 3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50종이 넘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특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나 과학 기술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박미현 대표는 다른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데 사람들의 관심이 플라스틱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여서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쓰레기는 버려지는 자원

우리는 그간 쓰레기를 두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을 해왔다. 15년간 쓰레기를 줍고, 이를 재활용하는 일에 매진해 온 터치포굿의 궁극적인 목표는 버리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을 일치시켜 보다 책임감 있고 가치 있는 업사이클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업이 직접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리싱크 솔루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리싱크는 버린 사람이 다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현수막을 리사이클한 가방은 디자인 작업을 거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반면, 리싱크 제품은 기업이 담고자 하는 의미나 이미지를 디자인에 반영할 수가

1.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단에 한강의 수달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담은 스카프
2. 버려지는 자원을 쓸모있게 바꾸어 가는 활동들을 통해 수상한 상패와 상장
3. 쓰레기 속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



있어요. 따라서 스토리가 완결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 기내담요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핫팩을 제작해 쪽방촌에 보내기도 하고, 병원 환자복을 재활용해 생리대 파우치로 만들어 기부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제품과 함께 기업의 따뜻한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백화점과 플라스틱 모으기 운동을 진행해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페플라스틱을 업사이클 화분으로 재탄생시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에 사용하는 등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회수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터치포굿은 연간 10~12톤의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몇 해 전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가방과 파우치를 제작하는 장면이 불과 3초 정도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완판한 한 사례가 있었다. 작은 계기 하나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박미현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버려지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 문의 t4g@touch4good.com

🌐 홈페이지 https://touch4good.com

‘삼한사미(三寒四微)’의 계절, 춥거나 공기가 탁하거나

삼한사미 :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겨울 날씨를 비유한 신조어다.

글. 박상욱 JTBC 기자

너무나도 추웠던 연말연시를 지나, 1월 중순에 접어들며 우리를 걱정시키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농도 초미세먼지였습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포근하다'라는 우리나라의 삼한사온은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삼한사미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올겨울에도 이 '삼한사미'라는 표현은 유효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라 부르는 이것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크기로 구분한 것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10 μ 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는 PM10, 그보다 더 작은 2.5 μ m 이하인 입자는 PM2.5라고 부르죠. 우리 표현으로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통상 기준으로 쓰이는 것은 PM10이 아닌 PM2.5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의 '보통'과 '나쁨'을 가르는 기준점, 우리나라의 법정 대기환경기준은 35 μ g/m³입니다.

통상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높아집니다. 연료 사용량이 늘어 배출량 자체가 증가하고, 대기혼합도가 낮아지며, 북서 계절풍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이 늘고, 강수가 적어지며,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여러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이 빚어지게 되죠. 이들 요인을 살펴보면, 날씨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배출량의 증가도 결국 '추운 날씨'의 영향 때문이고, 대기혼합도가 낮아지고, 북서 계절풍이 불며, 비가 적게 내리는 것 역시 날씨(또는 기후)의 영향이죠.

이 요인들 가운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배출량'입니다.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입자 자체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를 줄인다 하더라도 당장 대기혼합도가 낮아지고, 대기정체가 발생한다면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기혼합고는 말 그대로 대기가 순환을 하면서 위아래가 섞이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높이는 크게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여름보다 겨울에, 낮보다는 밤에 혼합고는 낮아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체육관에서 한 사람이 트림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데 좁은 컨테이너 속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모두가 그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기혼합고가 낮아진다면 농도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대기정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간은 같은데 창문의 개폐 여부에 따라 냄새를 맡는 사람의 수는 달라지겠죠. 그 냄새가 빠르게 공간을 빠져나가느냐, 그대로 고여 있느냐가 달라지니까요.

지난 1월 초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은 이러한 대기정체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파특보가 해제되기 무섭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통상 우리가 '국외유입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서해 백령도 관측소의 농도가 가장 먼저 치솟기 시작하고, 몇 시간 후 인천, 서울 및 경기, 충청과 강원 영서의 농도가 시차를 두고 차례로 오릅니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에 곳곳이 뒤덮이는 것이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기 시작했을 때 백령도 관측소의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역시 1월 6일 부산과 울산에 먼저 내려졌습니다. 이후 7일, 저감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죠. 왜 그랬을까요? 대기정체로 곳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하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엔 해풍의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기오염물질이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구의 분지 지형은 경북권의 농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대기정체에 공기가 분지 내에 갇히게 되니까요.

삼한사미를 바꾸기 위해선 그저 '입자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고농도 현상을 부르는 여러 요인 중 단 하나만을 통제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도 아니고, 날씨를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선 다음 달 '지구보고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도 친환경 여행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여행자들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추구하며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착한 움직임으로 눈길을 끈다. 그렇기에 에콰도르로 떠나는 친환경 여행이 큰 의미가 있다.

글. 임산하



장엄한 자연과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에콰도르



🌿 화산과 온천, 액티비티의 천국, 바노스

스페인어로 '적도(equator)'를 뜻하는 에콰도르는 그야말로 적도와 맞닿아 있는 나라다.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있는 나라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린다. 태양이 지나는 적도가 있는가 하면 안데스산맥의 설산을 마주할 수 있고, 황금어장인 태평양 연안이 있고, 열대우림과 정글까지 각각각색의 지형과 기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화산과 온천의 도시인 '바노스(Banos)'는 에콰도르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초록빛 산속에 완전히 파묻힌 마을은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을 연상케하지만, 악마의 냄비 폭포(pailon del diablo)와 활화산 통구라구아 등 진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게다가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래프팅부터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짐라인, 번지점프까지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키토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도선이 도시를 지나는 특별한 도시다. 해발 2,850m 지점에 위치한 고원도시로, 안데스산맥의 높은 산들이 도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신비롭다.

키토는 스페인 식민지시대 건축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 '올드 타운'이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 10대 문화유산도시'로 지정된 이곳은 좁은 길을 따라 광장으로 들어서면, 교회와 왕궁, 그리고 박물관들을 볼 수 있다. 고즈넉한 도시의 풍경은 중앙광장에서 출발하는 마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도시와 산들의 장엄한 광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파네시조 언덕(Corro de Panecillo)으로 가보자. 원래는 잉카 시대 이전부터 '태양의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 마리아상이 대신 서 있다.

해발 4,100m인 피친차(Pichincha)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압권이다. 이 산에 '텔레페리코(Teleperico)'라는 2.5km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어 쉽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맑은 날이면 안데스산맥과 시가지의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

에콰도르의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는 야생 생태계의 보고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섬으로,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들도 있다. 바다사자, 핀치새, 갈라파고스땅거북, 이구아나 등 육지와는 다른 희귀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1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갈라파고스 제도의 전체 면적은 제주도의 약 4배 정도 크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자연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관광객은 반드시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가이드와 동반해야 하고, 동물과 적어도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금지돼 있다. 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이나 식물, 곤충 등의 반입도 불가하다. 이러한 엄격함 덕분에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금도 물론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적도기념비

키토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산안토니오 마을에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0도 선이 있다. 적도는 지구상의 위도가 0도인 지역을 뜻하는데, 이는 태양과 지구 중심에서 직선을 그으면 그 직선이 닿는 위치를 뜻한다. 그 선 위에 적도기념비(La Mitad del Mundo)가 서 있다. 적도기념비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적도박물관인 미타 델 문도(La Mitad del Mundo)를 방문해 보자. 박물관에서는 실제로 적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가령 달걀 세우기, 배수구에 물 흘려보내기, 적도선을 따라 눈 감고 걸어보기 등이다. 적도는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해 달걀을 세울 수 있다. 또 배수구에 물을 흘려보면 물이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이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한다.

라스 그리에타스

에콰도르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라스 그리에타스(Las Grietas)다. 갈라파고스 제도 안에 있는 이곳은 화산 폭발로 협곡이 생성된 후 바닷물과 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천연의 수영장을 형성한 곳이다. 주변의 기암절벽이 바람과 파도를 막아줘 수영을 즐기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며 온몸으로 에콰도르의 청정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수영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속이 흰히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 덕분에 물고기도 많아 스노클링을 즐기기도 좋다.



그네 체험

바노스에는 그네를 타기 위해 오는 여행자들도 있다. 바로 '라 카사 델 아르볼(La casa del Arbol)' 때문이다. 일명 '세상 끝 그네'라고 불리는 데 동네 놀이터에 있는 흔한 그네가 아니다. 해발고도 2,660m의 낭떠러지에서 그네를 탄다는 사실. 그네에 앉아 두 발을 힘차게 구르고 나면 구름이 낮게 깔린 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네를 타는 게 점점 재미있어진다.

조약돌에 그린 작품

조약돌로 작품 만들기

돌맹이 중에서도 표면이 매끄러운 조약돌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다. 제각기 다양한 모양을 지닌 조약돌을 캔버스라고 생각해 보자. 조약돌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조약돌 아트'라고 한다. <조약돌 아트 만다라 컬러링>을 번역한 정영은 작가는 "조약돌 위에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초보자라도 조약돌 위에 다양한 색깔로 점을 찍듯이 만들다 보면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특히 만다라는 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나 원을 따라 전개되는 대칭적인 형태의 문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선명한 윤곽선은 조약돌 작품에 잘 어울린다. 채색한 다음 음영을 넣어주면 작품이 한층 더 돋보인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조약돌을 눈여겨보자.



우주의 보석



- ① 붓으로 조약돌을 진분홍색 물감으로 칠하고, 붓대 끝에 흰색 물감을 묻혀 중앙에 큼직한 점을 찍은 다음, 도트 붓으로 작은 흰색 점을 찍어주세요.
- ② 연한 연두색 물감을 중앙의 흰색 점 바깥쪽에 하나 건너 하나씩 찍어주세요. 밖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찍어주세요.
- ③ 연한 연두색 물감을 중앙의 흰색 점 사이에 하나씩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연두색과 파란색을 혼합한 물감으로 그라데이션 점을 찍어주세요.
- ④ 파란색 점 주위에 흰색 점을 찍어주세요. 진분홍색 물감으로 녹색과 파란색 점 사이에 점점 커지는 점을 방사형으로 찍어주세요.
- ⑤ 연두색 그라데이션 물감으로 원래의 그라데이션 점 위에 조금씩 작은 크기의 점을 찍어주세요.
- ⑥ 정중앙의 흰색 점 위에 진분홍색 점을 찍어주세요. 중심의 원과 가장 바깥쪽 열에 있는 원들의 중앙에 작은 흰색 점을 찍어 마무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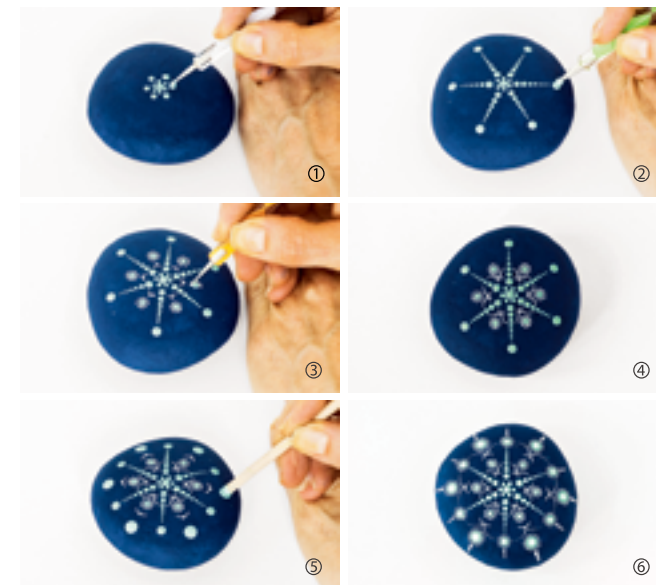
산책하다가 발견한 예쁜 조약돌을 어디에 쓸지 몰라 그저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면, 다시 꺼내보자. 동글동글한 조약돌에 그림을 그리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글. 이종철 도서 출처. <조약돌 아트 만다라 컬러링>, 나타샤 알렉산더 지음, 정영은 옮김, 진선아트북

어떤 조약돌을 골라야 할까?

조약돌 아트를 할 때는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조약돌은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보다 매끄러워야 마커 펜을 쓰기가 쉽고, 선이 깔끔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무채색 작품을 그리고 싶다면 검은색이나 어두운색의 조약돌을 고르도록 한다. 자연적인 질감을 살린 어두운 조약돌에 밝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큰 그림을 원한다면 큰 조약돌이 어울린다. 몸집이 큰 곰이나 코끼리, 거대한 물고기를 그릴 때는 큼직한 조약돌이 필요하다. 액세서리, 자석 등을 만들고 싶다면 작고 가벼운 조약돌이 적합하다. 이렇게 조약돌 아트를 할 때는 돌의 자연적인 형태를 최대한 살려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① 조약돌을 진한 파란색으로 칠하고, 도트 붓으로 중앙에 큼직한 연한 청록색 점을 찍고, 주변에 작은 점을 6개 찍어주세요.
- ② ①에서 찍은 중간 크기의 점을 시작으로 방사형을 이루는 연한 청록색 점을 찍어주세요. 밖으로 갈수록 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찍어주세요.
- ③ 방사형으로 뻗어 나간 연한 청록색 점 사이에 작은 흰색 점을 찍어주세요.
- ④ ③에서 찍은 작은 흰색 점에서 양옆 연한 청록색 열의 세 번째 점으로 연결되는 흰색 점을 찍어주세요. 점의 크기를 점점 줄여 가며 곡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 ⑤ 연한 청록색 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작은 점 사이 가운데 지점에 작은 흰색 점을 찍어주세요.
- ⑥ 바깥쪽에 있는 모든 큼직한 연한 청록색 점 주위에 작은 흰색 점을 찍어주세요. 바깥쪽에 있는 큼직한 연한 청록색 점에서 더 바깥쪽으로 흰색 점을 찍어 장식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특별한 반짝임



식중독은 흔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영하의 날씨에 “음식이 상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고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글. 이종철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 ~ 2021년 연평균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중 무려 40%가 겨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겨울철에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했을 경우, 그리고 굴이나 조개 같은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이 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성이 강해 쉽게 전염이 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간은 잠복기를 거친다. 이후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하기도 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로타바이러스와 헛갈려요

노로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로타바이러스도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5세 이전에 한 번쯤 감염될 만큼 흔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전염성이 크며, 오염된 물건이나 음식물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염될 수도 있으며, 로타바이러스에 걸린 아이들과 접촉한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고열과 구토로 시작해 2~3일 뒤에는 심한 설사를 동반한다. 다행히 노로바이러스와 달리 로타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어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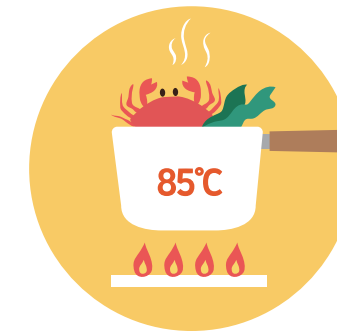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2~3일 내에 저절로 낫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물이나 이온음료로 수분을 채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한다. 가능하면 물은 끓여 마시고,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을 살균·세탁하는 게 좋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손 씻기가 중요하다.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 손바닥 등을 꼼꼼하게 씻어준다.

또 조개, 굴 같은 어패류는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도록 한다. 가능하면 음식을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노로바이러스가 죽는다.



#손 자주 씻기



#어패류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봄날 같은 하루,
우리 함께 티타임을 가져요



2023년, 토끼처럼 강충 뛰어오를 준비를 마친 부서가 있다. 한 단계 한 단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고 있는 '수변기획처'가 그 주인공이다. 특유의 훈훈한 분위기를 전사에 전파하고 싶다는 이들에게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그 비밀을 찾으러 커피차는 수변기획처가 있는 K-water 본사로 달려갔다.

글. 최행자 사진. 김범기 영상. 박인준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지난 1월 12일, 대전으로 내려가는 날씨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따뜻한 바람까지, 그야말로 '봄날' 같았다. K-water 본사에 커피차가 들어서자 오늘 행사의 의미를 전하는 '수변 도시사업의 시작점, 수변기획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오늘의 이벤트는 수변기획처 박경준 대리의 사연으로 이뤄졌다. '수변기획처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던 그는 '수(水)타벅스가 간다'에 직접 사연을 보냈다. "수변기획처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수(水)타벅스가 간다'의 주인공이 되어 사보를 통해 그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서가 고생이 많지만 특히 강원도 춘천시에서 현장 보상 업무를 고생하고 있는 강원수열보상팀에게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신청하게 됐습니다"라며 박경준 대리가 사연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전파하고 싶은 수변기획처만의 따뜻한 문화

수변기획처는 수변경영부, 수변정책지원부, 보상부 이렇게 3개 부로 이뤄져 있다. K-water 수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 기획, 정책지원,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 분야 총괄부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올해는 분양 및 보상 업무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과 관리 개선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분야의 총괄기능을 강화해 K-water 수변사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그린도시, 탄소중립도시의 정책을 추진하고, 보상과 분양 관리 등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변기획처는 웃음이 가득한 부서다. 어떻게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까? 그 비밀은 수변기획처만의 따뜻한 문화에 있었다. 서로를 향한 배려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손발을 맞추며, 크고 작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변기획처의 자랑이라 할 만하다.

박정암 대리는 "수변기획처는 이제 회사의 한 축이 된 수변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의 기초가 되는 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수변기획처만의 자랑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소속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의 분위기는 회사 전체에 전파하고 싶은 문화"라며 자랑했다.

강승택 강원수열보상차장은 "보상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 나가 보상받을 물건들을 조사할 일이 많은데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굽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부딪혀서 몸에 멍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직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다 같이 뛰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실 때 참 뿌듯해요. 힘들 때도 많지만 이렇게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실 때 정말 감사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장 생활에서 처음 받아 본 커피차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수변기획처를 위해 이렇게 커피차를 준비해 주니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달달한 캐러멜 라테에 만족을 표했다.

포근해진 날씨 덕에 문전성시를 이룬 커피차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커피차 앞으로 모여들었다. 민트색 커피차는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응원 현수막에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직원들은 10가지가 넘는 음료수가 적힌 메뉴판을 보며 오픈을 기다렸다. 향긋한 커피 향과 신나는 음악이 더해져 자 진짜 카페에 온 듯했다. 커피차가 준비를 마치자 직원들이 텀블러와 머그잔을 들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긴 줄이 만들어졌고, 직원들은 반달눈이 된 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예원 과장은 "날씨가 좋은 오늘 이렇게 커피차가 와서 좋고, 부서 화합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라며 복숭아 아이스티가 시원하다고 말했다.

레몬에이드를 마시던 연은하 인턴사원은 "나른할 수 있는 오후 시간에 상큼한 음료 덕분에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고현수 차장은 "커피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네요. 직원들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래서인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네요"라고 말했고, 박정연 사원은 "오랜만에 커피 대신에 레몬에이드를 마시고 있어요. 음료 한 잔으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자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라며 커피차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

직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차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커피차 앞에서 익숙한 듯 단체사진을 찍으며,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하루였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message.

수(水)타벅스의 주인공이 되어
수변기획처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고 싶어요!

박경준 대리

수변기획처

수변기획처는 수변경영, 정책지원과 더불어 보상부를 통해 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추운 날씨와 달리 훈훈한 업무 분위기를 자랑하는 수변기획처가 '수(水)타벅스가 간다'의 주인공이 되어 사보를 통해 그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시에서 현장 보상 업무로 고생하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주민 손으로 건강한 물환경 만들기

K-water는 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책 수립에서부터 관리·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 주체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지역이 주도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사업

K-water는 댐 하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지역주민, 지자체, NGO와 함께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지역주민이 댐 유역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하고 상시 수거하는 것으로, 댐 상류 주민에게 사회적경제 기반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댐 하류 주민에게는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한다. 나아가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저감해 해양오염을 방지한다.

1 호

대청댐 주민자율관리사업

11 개

협동조합 설립 수

321 개

일자리 창출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

2020년 12월 완공

전체 면적 62,000 m²

축구장 9 배



지난 2020년 12월, K-water는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 사업을 완공했다. 사업대상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청북도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으로, 전체 면적은 약 6만 2,000m²이다. 이는 축구장 9개 정도에 해당한다. 이 사업으로 댐 홍수터 본연의 홍수조절기능은 물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기능을 갖추고, 비홍수기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 문화공간으로도 복합 활용하고 있다.

보현산댐 주민 참여로 지속가능한 물환경 개선

보현산댐 유역의 경우 금호강 상류에 위치하며, 댐 유역면적이 32.61km²로 행정구역은 1개시, 1개면, 6개리이며, 고현천과 3개의 지천이 흐른다. K-water는 지역사회, 주민, 전문가 등과 협력해 통합물환경관리를 위해 5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물맑은 명품마을 조성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32.61 km²

댐 유역 면적

17 개

추진 과제

물환경

K-water는 댐 유역을 중심으로 자연 기반 해법의 물순환, 자연 순응형 공간 조성을 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등 물환경 개선으로 국민을 위한 생태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



WATER ENVIRONMENT



K-water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합니다

기후변화로 물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에 K-water는 국민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또한 강우 시 댐 유역 비점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유형의 저감시설을 도입하고, 지역 맞춤형 오염저감 방법을 교육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개선으로 ESG 경영 가치도 함께 실현 중이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물환경 개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인해 물환경 관리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34개 댐 상류 유역은 국토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특히 댐 상류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많아 K-water는 댐 상류지역의 지속가능한 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사업 확대, 댐 홍수터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상류지역 생태환경마을 조성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댐 유역에 부유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와 비료, 가축 분뇨 등 오염원 유입으로 상수원 수질 오염 및 경관



1. 대청댐 주변지역 쓰레기수거 활동

생태계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다. K-water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NGO 등과 협의해 '주

민참여형 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대청댐 주변지역인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주민

45명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금강’의 운영을 지원했으며, 현재 기준 대청댐(67명), 용담댐(12명), 주암댐(42명), 합천댐(44명), 소양강댐(16명) 등 11개 댐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조합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지역 소득 증대와 3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깨끗한 하천환경관리를 실현하는 상생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K-water는 쓰레기 발생 감소로 수질 오염 방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NGO 육성 등 ESG형 주민 참여 기반의 유역 물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K-water는 댐과 인접한 홍수터를 수변생태벨트에 포함해 통합 관리·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임시로 물을 저장하

기 위한 홍수조절용 토지로, 각종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며 생물 다양성 증진과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수변생태벨트는 댐 홍수터를 제외하고 조성함으로써 오염원 유입 저감과 수생태 보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홍수터를 아우르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대청댐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 시범사업은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해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

2.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조성(충청북도 옥천군 지오리)



2



3. 보현산댐 심층시비하는 모습
4. 보현산댐 물환경관리협의회 회의

와 연계를 고려한 최초의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주민 주도의 수생태계 보전 및 생태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해 현재 모니터링 중이다. 2021년에는 4개 수계(한강, 금강, 영·섬, 낙동강) 댐 홍수터의 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가 시작돼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금강유역의 신상지구와 영산강유역의 읍어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해 홍수터와 수변구역을 연계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K-water는 댐 수질 개선을 위한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대청댐과 주암댐을 대상으로 신(新)유형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연중 안정적인 운영 효율을 위해 기존의 여러 저감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장치형 시설로,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을 집중 저감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지역 맞춤형 물환경관리사업 모델로 댐 상류 오염배출 특성을 고려한 최적처리 기술 적용과 효과를 입증한 다음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해 K-water가 관리하는 34개 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물맑은 명품마을 운영

K-water는 댐 상류지역의 근원적인 오염원 유입 저감을 위해 주민 참여로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 개선·관리도 추진 중이다. 금호강 상류에 위치한 보현산댐 유역의 경우, 고현천과 3개의 지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변에 밀집된 농경지에서 강우 시 오염물질이 일시에 댐으로 유입되고 있어 K-water는 지역사회, 주민, 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난 2018년부터 유역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종합대책을 수립해 빗물~댐~하류 고현천 전 구간 수량, 수질, 수생태 통합물환경관리를 위해 5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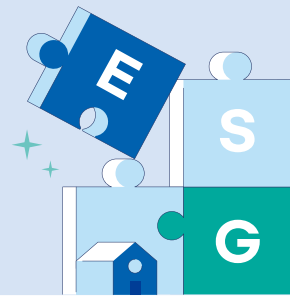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유역 물환경관리 표준모델을 구축해 댐 목표 수질 1등급 달성 유지와 지역 상생 발전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또 K-water는 거점형 오염저감사업 대상지인 영주댐, 보현산댐, 대청댐 3개소에 ‘물맑은 명품마을’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상수원 상류 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과 연계해 비점오염원의 주원인인 표층시비를 심층시비로 전환했다. 그리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태양광 활용 청정마을 선도,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물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설립 및 지역주민의 사업주체 참여와 수익 공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K-water는 이러한 토양 오염원 저감과 물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댐 상류 환경 개선, 생태관광 활성화로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모바일 수돗물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다



국민참여 디자인단과 함께 앱 개발 추진

K-water는 실시간 사용량, 수도요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위터나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터나우는 K-water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의 수돗물 정보서비스를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2021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위터나우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이용 중인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수도요금 확인은 고지서나 PC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실시간 사용량, 요금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돗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수도 정보서비스 도입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산권지사에서 발생한 민원 가운데 수도요금 문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water는 '모바일 수돗물 정보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K-water는 '국민 관심 정보를 반영한 모바일 수도 정보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국민이 참여한 수요자 중심의 앱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시민, 지자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디자인단'은 개발 단계부터 실행, 평가, 환류 등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K-water는 국민에게 더 나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바일 수돗물 정보서비스인 '위터나우' 앱이 대표적이다. 위터나우에서는 실시간 사용량, 요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 참여로 개발한 위터나우를 통해 K-water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물로 행복을 전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국민 체감형 모바일 수도 정보서비스 확대

국민참여 디자인단은 사용량, 납부요금 등 핵심적인 요금정보를 선별했다. 실시간 물사용량 패턴 분석으로 누수·단수 징후 알림 및 지자체 돌봄대상 안전여부 확인 알림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치를 최소화하는 등 손쉬운 디자인을 도출해냈다. 이렇게 개발된 모바일 수도 정보서비스는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제공했다. 물사용량, 수도요금, 수질정보, 동파알림, 누수알림 등 정보서비스는 기본이고, 수용가 번호만 있으면 물사용량 기준범위를 초과하면 즉각적인 푸쉬 알람을 제공해 누수·동파 피해의 예방이 가능해졌다. 또 실시간 물사용량 패턴 분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요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K-water는 서산시 선도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수도 정보서비스는 K-water가 관리 중인 22개 지방상수도 사업장에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가수도정보서비스 표준 모델화로 전국 지자체에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위터나우를 통해 전국 동파알림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K-water는 앞으로도 수돗물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에게 물로 행복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터나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가족공예는 정성이 들어가는 체험 중 하나다.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누군가에 선물하기에도, 혹은 나에게 선물하기에도 이만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다. 천연가족으로 카드지갑 만들기에 도전한 낙동강유역본부 4명의 직원들은 만드는 내내 가족공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글. 최행좌 사진. 김범기

가족으로 만든 지갑이 너무 예뻐요

낙동강유역본부 4명의 가족 지갑 만들기



오늘은 사무실이 아닌 가족공방에서

가족 냄새가 진하게 묻어나는 대구의 한 가족공방에 조하나 고령권지사 대리, 이시내 군위댐지사 대리, 허진재 군위댐지사 대리, 서로 김천부항댐지사 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해치스 (Happy Cheese Smile)'의 멤버인 이들은 군위댐지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조하나 대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어느 멋진 날'을 여러 번 신청했다고 한다. 그는 "사보에 실리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친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라며 활짝 웃었다. "사무실에서 벗어나 친한 동료들과 함께 우정을 쌓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거 같아 기뻐요"라는 이시내 대리,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어머니께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의미 깊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라는 허진재 대리, "좋은 기회로 동료들과 함께 참가하게 돼서 좋아요"라는 서로 대리까지 오늘 참가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카드지갑을 만들기 위해 모인 이들의 포근한 마음이 전해졌다.

한 땀 한 땀 카드지갑에 몰두한 시간

이들은 카드지갑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가족의 색상도 미리 골랐다. 조하나 대리, 이시내 대리는 빨간색으로, 허진재 대리는 녹색으로, 서로 대리는 검은색을 선택했다. 카드지갑을 만들 작업대 위에는 재단된 가죽과 송곳, 사포, 본드 등이 놓여 있었다. 먼저 각자 원하는 모양으로 가죽을 재단하고, 각인을 새기고, 사포로 테두리를 매끈하게 만들었다. 테두리에 마감재를 바르기 위해 이들은 집중력을 한껏 끌어

올렸다. 마감재는 '적당히' 바르는 기술이 필요했다. 마감재 양이 너무 적으면 테두리가 매끄럽지 않고, 너무 많으면 가죽으로 흘러내리는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손재주가 부족하다는 서로 대리는 신중하게 작업했다. "선생님, 마감재는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서로 대리가 묻자 "네, 잘 하셨습니다"라며 선생님이 대답했다. 허진재 대리는 녹색 가죽에 노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다. "대리님, 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라며 옆에 앉은 조하나 대리가 말했다.

마감재가 마르는 사이에 송곳을 수직으로 세워 바늘구멍을 뚫고, 실색을 골랐다. "실색은 빨간색과 흰색 중에 뭐가 좋을까요?" 조하나 대리가 고민하자 이시내 대리가 "흰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며 골라주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테두리를 실로 꿰매는 작업이었다. 보통 가죽 지갑은 '새들 스티치(saddle stitch)'를 이용한다. 새들 스티치는 실 양쪽 끝을 바늘에 꿰어 두 개의 바늘을 이용해 꿰매는 박음질로, 하나의 실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하나의 실이 남아 있어 튼튼한 기법이다.



이시내 대리가 "바느질이 삐뚤삐뚤한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자 "새들 스티치는 살짝 기울어진 모양이에요. 잘 하고 있어요"라며 선생님이 칭찬했다.

"지금 바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라는 허진재 대리의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바느질 작업을 하는 시간 내내 대화의 꽃이 피어났다.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으로 완성한 카드지갑

'정말 카드지갑을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이들에게 "모두 색상 조합도 좋고, 바느질도 훌륭해요"라며 선생님의 칭찬이 쏟아졌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카드지갑이 완성됐다.

바느질 작업을 가장 늦게 시작했던 조하나 대리는 가장 빨리 끝나며 '금손' 실력을 자랑했다. "성격이 급해서 걱정했는데요. 완성된 카드지갑을 보니 뿌듯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멤버와 함께 또 참여하고 싶어요"라며 완성된 지갑은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바느질은 삐뚤삐뚤 하지만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대견스러



워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재미있었어요"라며 이시내 대리는 웃음을 지었다.

'기술가정' 시간에 바느질해 본 이후 처음이라는 허진재 대리는 "바느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생각보다 바느질이 재미있었어요. 직접 만든 카드지갑을 어머니께 빨리 주고 싶네요"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카드지갑 만들기에 몰두했던 서로 대리는 "지갑의 불편함 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 카드지갑을 만들었는데, 완성된 지갑을 보니 제가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사연을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 나오는 가죽 지갑처럼 즐거운 체험을 함께한 이들의 우정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최 주임, 요즘 다른 팀원들은 좀 어때요?” 김 팀장님은 오늘도 박 주임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다. 사무실에 박 주임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박 주임에게 접근한 것이다. 최근 사무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만만한(?) 팀의 막내에게 물어본 것이다. ‘다른 팀원들은 어떻냐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다른 팀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평이라도 해달라는 말일까?’ 박 주임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럴 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글. 최정우 심리상담사

팀원들에 대해 물어보는 팀장님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66

“최 주임, 요즘 다른 팀원들은 좀 어때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다른 팀원들은 어떻냐는 말이?’
 다른 팀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평이라도 해달라는 말인가?

99



‘김 팀장님은 난데없이 왜 다른 팀원들에 대해 물어보는 것일까?’ 김 팀장님은 팀원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또는 팀의 분위기를 물어보며 박 주임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솔직히 다가오는지 떠보는 질문일 수 있다. 이 때문이었을까? 내가 근무했던 팀장님들도 네 편, 내 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종종 했던 것 같다.

“최 과장, 요즘 다른 팀원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나름대로 깨달았던 점은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가령 물어보는 상사가 믿음직한 상사라면 솔직히 말해도 좋다.

“서 과장님이 사람은 좋은데 한번씩 업무 공유하시는 걸 잊으셔서 유관 부서와 소통할 때 가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사에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팀장이기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장님에 대해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

믿지 못할 상사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험담하고 싶은 다른 팀원이 있어도 상사에게 무난하게 대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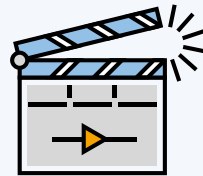
“다들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들 잘 지내고 계세요.”

가장 무난하고 좋은 대답이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팀장님, 죄송한데 생각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일단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팀장님의 질문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수생태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K-water의 사업들, 여전히 어렵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Q. 한강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강에 자취를 감췄던 수달이 40여 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수달이 발견된 곳이 한강과 탄천 합수부였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은 수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물에서 사는 족제비'인 수달(水獭)은 왜 멸종위기종이 됐을까요? 보온과 방수에 탁월한 수달의 털은 자연에서는 든든한 방패막이였지만, 모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라졌던 수달이 한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의 자연성 회복으로 환경이 좋아졌고,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수달이 살기에 좋은 못이나 여울이 조성돼 최근에는 수달 외에도 야생동물들의 흔적들이 한강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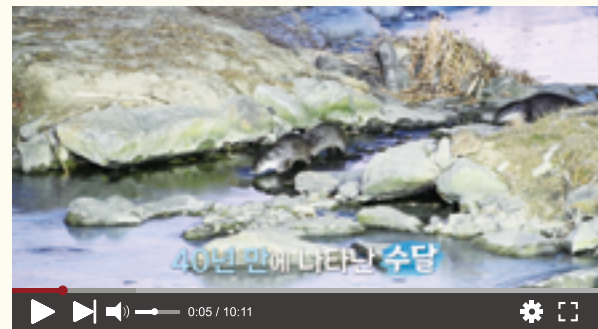
수달은 수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도 최상위 포식자가 필요합니다. 수달이 다양한 생태 교란 생물뿐만 아니라 잉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도 수달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달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천을 가꿔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어 미세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의 사용을 줄이며, 쓰레기도 분리수거해 배출하고, 강과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강의 수달 가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퀴즈 EVENT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멸종위기 종 수달 가족이 한강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1.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족제비과의 포유류는 무엇일까요?

Q2. 사라졌던 수달은 한강에 몇 년만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Q. 시화호의 수생태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이 습지는 수달부터 너구리, 고라니, 삵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수달이 나타났을 때는 2마리였는데, 지금은 30마리 이상으로 개체 수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달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화호의 환경이 좋아진 결정적인 요인은 '해수유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시화호가 바닷물과 호숫물이 오갈 수 있는 수문을 만들어 '해수유통'을 결정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거대한 물의 흐름으로 바다와 호수의 경계가 열리면서 서로의 생태계도 어우러지게 됐습니다.

현재 K-water는 시화호의 생태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퇴적층에서 생활하는 저서동물을 채집하기 위해 '그랩'을 이용해 퇴적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저서생물, 플랑크톤 등을 실험실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해수유통 이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시화호의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혔던 방조제가 열리고 물이 유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화호의 수질도 개선되고, 그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갯벌도 살아났습니다. 더불어 조개와 게 등 저서생물은 물론 새와 육상동물이 돌아오면서 시화호의 생태계가 복원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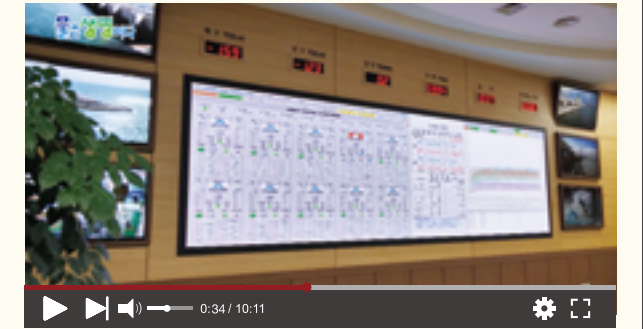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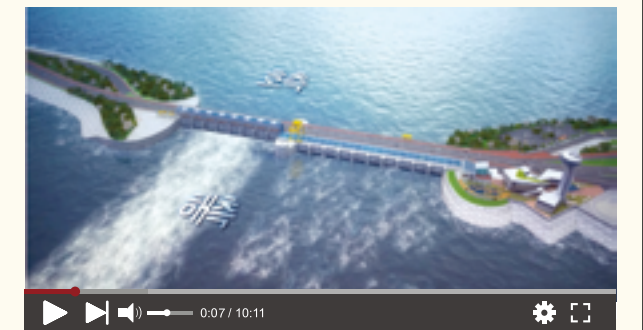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시화호의 수생태계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지속가능한 물의 미래 물이 통하면 생명도 통한다 - 해수유통이 만든 변화, 시화호'를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3. 시화호의 환경이 좋아진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Q4. 시화호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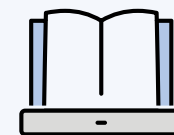


이벤트 참여방법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쿠폰 20명
접수 마감일 2월 25일
선물 발송일 3월 15일경
※ 3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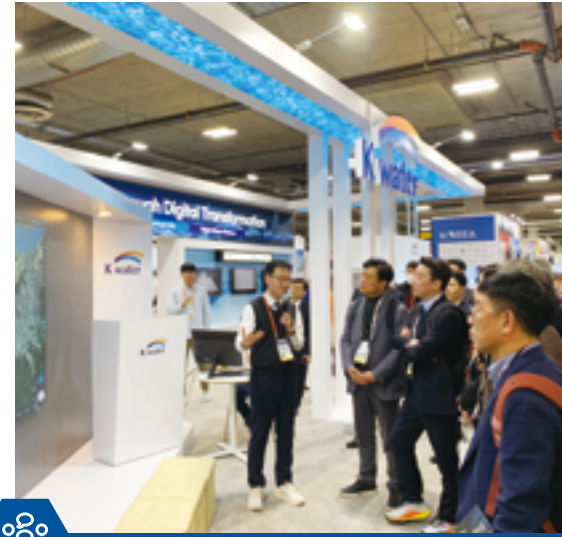
K-water의 전시관에서 혁신 물기술 소개

K-water는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물 산업전시회 'CES 2023'에 14개 국내 물기업과 함께 참가했다.

K-water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CES 2023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혁신 물 기술인 디지털 트윈기반 유역물관리(Digital Garam+), 스마트 댐안전 및 녹조관리,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빌리지, waterRound 등 10개 기술을 선보였다. 혁신성을 인정받는 국내 물기업 14개사와 동반 참여해 국내 물산업 진흥 및 물 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K-water는 혁신형 신기술과 신제품을 전시하는 유레카 파크관에서 전시관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물-에너지-도시, 넥서스'를 테마로, 수질 및 실내 공기질 IoT 모니터링 솔루션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3D 플랫폼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K-water의 지원을 통해 CES 2023에 참여한 물기업 중 비티이, 위플랫 등 9개 기업(10개 제품)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66

K-water는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물분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9

물 관련 기업과 동반성장 기대

K-water는 대한민국 물 관련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 관련 혁신 스타트업 157개를 발굴했으며, 멘토링·기술실증·투자유치 등 성장(Scale-up)을 지원하고, 약 2천억 원의 매출과 1,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CES 2023을 비롯해 글로벌 전시회(미국 AWWA ACE, 두바이 WETEX 등)에 물기업과 동반 참여하며 현지화 시범사업 및 민관 협력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 판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정호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의 이사는 "CES 2023 참가를 통해 물중합 플랫폼 기업인 K-water와 국내 물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을 널리 알리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물분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FOCUS 1

대한민국 물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다

K-water 글로벌 물산업전시회 'CES 2023' 참가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3'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박람회에 K-water는 글로벌 물산업 전시회에 국내 물 관련 기업과 함께 참가해 대한민국 물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물기업(14개 사) ★★

- ① 물 부문: 심플그로우, 아트와, 에스엠티, 에스디티, 에코피스, 워터제네시스, 위플랫, 쿠기
- ② 에너지 부문: 비티이, 서지텍, 케이워터크래프트
- ③ 도시 부문: 무브먼츠, 클로버스튜디오, 플러시티

K-water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이 국내 물산업 펀드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국내 물기업에 대한 투자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물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글: 최행화 사진: K-water

물산업 펀드로 국내 물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다

동남권 지역혁신펀드 1호 기업 투자계약 체결식



FOCUS 2

㈜아드보, ㈜공공 투자 유치에 성공

지난 1월 17일, K-water는 본사에서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첫 번째 물기업 투자를 확정 짓고 대상 기업과 투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펀드'란 물산업 및 경남·울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K-water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물산업 및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2021년 3월 K-water가 참여한 충청지역뉴딜(물산업) 펀드에 이은 2호 물산업 펀드다.

지난 2021년 협약체결 이후 2022년부터 3년간 모펀드 840억 원(모태 420억 원, K-water 300억 원, 지자체 120억 원)을 조성, 민간자금을 결합한 총 6개의 자펀드를 결성해 1,2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활용해 물산업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소재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친환경 건축구조물을 사업화 중인 ㈜아드보와 물을 이용한 저탄소 공기정화 기술을 보유한 ㈜공공으로, 이번 계약 체결로 ㈜아드보에 15억 원, ㈜공공에 5억 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K-water는 이 밖에도 해당 기업들이 고속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한 기술 실·검증, 현장 적용 및 멘토링, 국내 외 비즈니스 전시회 동반 참여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K-water는 2018년부터 물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해왔다. 자체자금 약 1,000억 원을 투입 2025년까지 4,600억 원 이상의 물산업 특화 펀드를 조성 중이며, 이를 활용한 물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 및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국내 물산업 투자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CES 2023에는 공사가 보유한 혁신기술 10가지를 선보이는 한편 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 물기업 14개 사와 동반 참여해, 680여 건의 수출상담, 900만 달러 계약 협의 등 국내 물기술의 우수성과 미래 물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큰 호평을 얻었다.

안정호 K-water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는 "K-water는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물산업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적인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물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K-water는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물산업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적인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



K-water, 행정안전부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K-water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97점으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기관 유형별 격년제 실시로 변경되어 2022년에는 정부산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K-water는 이번 평가에서 필수지표인 '기록관리 업무기반'과 '기록관리 업무추진'에서 만점을 받았고, 선택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등 K-water가 기록관리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기록관리와 관련한 높은 역량을 갖췄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물 관련 대내·외 전문자료를 수집하고, 원문화해 대국민에 공개하는 워터북플랫폼(Water Book Platform)을 구축해 운영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2



K-water, 포항시와 항사댐 건설을 위한 MOU 체결

지난 1월 26일, K-water와 포항시는 냉천·신광천 유역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시대, 항사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포항시의 물 재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포항시 관내 항사댐 등 냉천, 신광천 유역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개발, 관리를 위한 수자원 분야 기술교류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K-water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풍부한 수자원 개발 분야 경험 및 기술을 적극 활용,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전환의 미래로 가는 희망의 물길> 도서 발간

지난 1월 18일, K-water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K-water의 미래 전환 전략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전환의 미래로 가는 희망의 물길>을 발간했다. 이 책은 K-water 임직원, K-Study 참여 직원, 미래전략실, 홍보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효율적 물관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를 함께 해온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전문기관 K-water의 발자취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담은 책이다.

△국가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의 공기업, K-water 발자취, △뉴노멀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한 World Top 신경영, △7천여 K-water인이 일군 도약과 혁신의 27개 시그니처 성과,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10대 미래 어젠다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전환의 미래로 가는 희망의 물길>은 K-water가 대중교양서적 최초 시중 출판하는 책으로, 현재 전국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웹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매월 K-water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구독해 주세요.

웹진 구독하는 방법

첫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 접속한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http://k-waterwebzine.com

둘째

구독신청을 클릭한다.

셋째

카카오톡 / 이메일 중 선택한다.

넷째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벤트 응모하고 선물 받자!

이벤트 하나. 퀴즈있수다 이벤트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있수다 이벤트를 클릭한다.
2. 영상을 보고 정답을 작성한 다음 제출하기를 누른다.

▲ 웹진 바로가기

이벤트 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화면 캡처하기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다.
2. 채널 추가화면을 캡처한다.
3. QR코드를 스캔 후 이름, 연락처, 화면 캡처 사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른다.

▲ 이벤트 바로가기



영화

애프터선

감독 | 샬롯 웰스

개봉 | 2023년 2월 1일 개봉

©네이버 영화

영화 <애프터선>은 한 여성이 20여년 전 아버지와 보낸 튀르키예 여행이 담긴 캠코더를 보며 그 해 여름을 회상하는 영화다. 반짝이는 태양 아래 서로를 향한 애절한 감정을 주고받으며 성장해가는 부녀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2월을 풍성하게 수놓은 문화 속으로

2월에는 어떤 문화 행사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까? 이달의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지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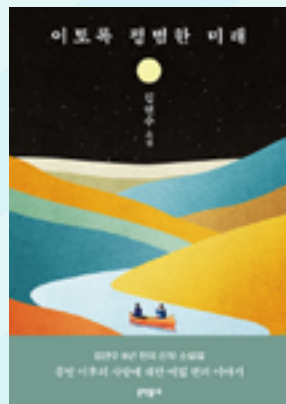
글. 이종철

도서

이토록 평범한 미래

저자 | 김연수

출판 | 문학동네



작가 김연수가 9년 만에 출간한 여섯 번째 소설집이다. 이 책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르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시간을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현재의 시간을 아름답고 서정적인 언어로 풀어낸 여덟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축제

강화도왕방마을얼음축제

기간 | 2월 26일까지

장소 | 인산저수지



인천광역시 강화도 양도면에 위치한 인산저수지에서 강화도왕방마을얼음축제가 열리고 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송어와 빙어를 잡으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낚시 체험 외에도 직접 잡은 빙어를 튀기거나 요리할 수 있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전시

송만규 초대전

기간 | 2월 26일까지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송만규 초대전 '섬진강에서 두만강까지'는 올해로 '강'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30주년이 된 작가가 그동안 자신만의 시선으로 화폭에 담은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섬진강부터 만경강, 임진강, 한탄강, 예성강, 두만강, 해란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을 감상할 수 있다.

재미있는 소식이 가득한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총사
지금 바로 만나기!



지금 K-water SNS 오총사들은 어떤 콘텐츠를 업로드했을까? 다양한 생활정보부터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까지! 시간을 순삭(순간 삭제) 시키는 K-water의 SNS를 모두 만나보자.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eet



난 오늘 월요일 연차를 썼어, 연진오. 아니 수분아 부럽다고 해.
#일요일은특별 #연차가다 #지식인연차 #OTT #드라마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쓰고 남은 화장품 올바르게 버리는 법
집안 정리 중 발견한 언제 산 지도 모르겠는 화장품들 남은 화장품은 어떻게 버릴까요?
#한국수자원공사 #다쳐서 #화장품버리기 #화장품재활용법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lovekwater



방울이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면 저절로 따라 하게 된다. 방울이처럼 놀고, 즐기고, 쉬면서 일상에 재미를 더하게 된다. 하루하루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한 방울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보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볼 것!



#추억 추억
#방울이 #귀여



#방울이 네가 만화
#공기밥배배 #인기쟁이



#다들템 #여사
#공기밥배배 #방울이



#2023도 방울이
#넌가평화다 #무플다양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2023 계묘년 방울이가 전하는 새해 인사

K-water의 귀염둥이 방울이가 구독자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방울이의 새해 계획이 궁금하다면 지금 K-water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자. 이외에도 물 만난 이야기, 방플리, 방구석 공작소 등 다양한 소식도 만날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 신청!

#2023년 #방울이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1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황○순(010-****-6998)



서○주(010-****-8461)



전○빈(010-****-1519)



이○현(010-****-0728)



전○원(010-****-1104)

이벤트 선물 발송일 2월 15일경
※ 2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 | |
|-------------------|-------------------|
| 박○희 010-****-3599 | 권○동 010-****-1434 |
| 최○림 010-****-2496 | 김○경 010-****-5066 |
| 김○진 010-****-0161 | 송○나 010-****-0826 |
| 문○준 010-****-8618 | 강○하 010-****-7820 |
| 이○람 010-****-3225 | 변○식 010-****-6338 |

#kwater물디지털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yunmigyeong63 | @silver_k123 | @daily55record | @sundew4004 | @hyjoyful
@h_by9904 | @oungradient35 | @bbnyum | @sang.p | @simboyeong56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퀴즈잇수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20명

- | | | | |
|-------------------|-------------------|-------------------|-------------------|
| 김○미 010-****-0628 | 진○정 010-****-5103 | 이○현 010-****-5925 | 정○은 010-****-1080 |
| 백○미 010-****-6116 | 지○숙 010-****-9126 | 이○정 010-****-8345 | 정○희 010-****-1380 |
| 홍○훈 010-****-3710 | 김○덕 010-****-4735 | 이○진 010-****-3583 | 박○수 010-****-1790 |
| 차○덕 010-****-2295 | 김○철 010-****-8919 | 이○은 010-****-7933 | 신○원 010-****-3891 |
| 김○철 010-****-0092 | 윤○훈 010-****-0757 | 김○원 010-****-4496 | 유○주 010-****-0757 |

K-water와 함께 하는 물환경 도시 만들기

K-water는 국민과 함께 다양한 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K-water의 물환경 도시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K-water의 파스콧트 '방울이'
방울이도 수변생태벨트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수변생태벨트
깨끗한 수변생태벨트에서 신나게 놀아요.



대청댐 쓰레기 수거 활동

대청댐 주변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진(2MB)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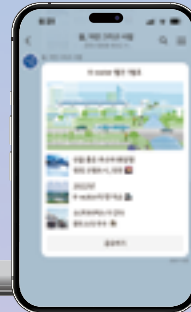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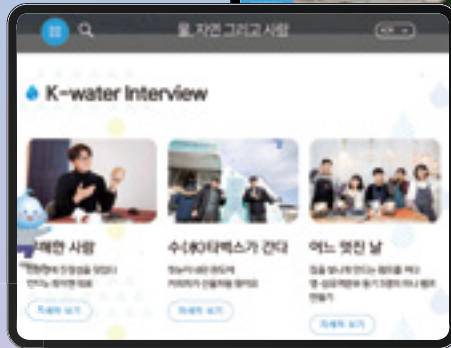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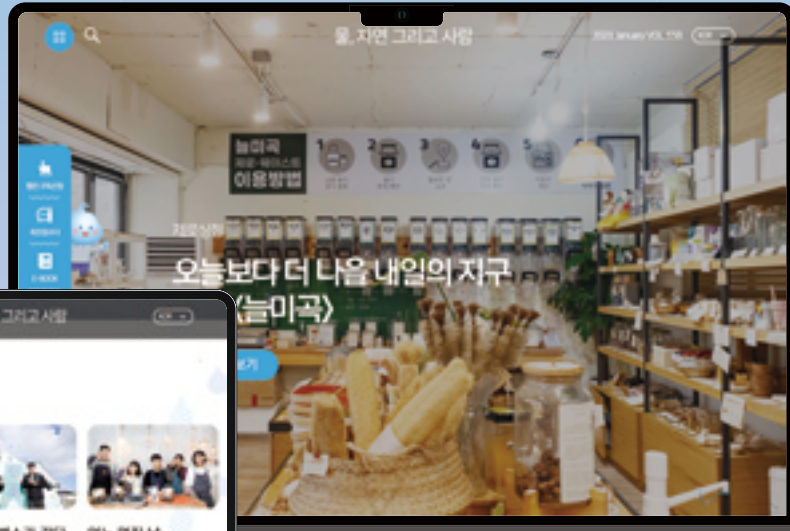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명
접수 마감일 2월 25일
선물 발송일 3월 15일경
※ 3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소개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설문조사 EVENT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음료 기프티콘(20명)을 선물로 드립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설문조사기간 2월 6일 ~ 2월 17일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20명

선물 발송일 3월 15일경

당첨자 확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책자 사보 3월호에 게재

※ 3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설문조사 이벤트
바로가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시민과 함께 하는

2023년 제1차

K-water 옥외글판 문구 공모

| 공모주제 | '일상, '설렘' 中 택 1 (1인 1작품, 공백 제외 30자 이내)

| 공모기간 | 2023. 2. 1 (수) ~ 2. 14 (화)

| 공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보내실 곳 : happykwater@kwater.or.kr)

• 필요서류 다운로드 : K-water 소통플랫폼 단비톡톡(www.kwater.or.kr/danbitoktok) 내 콘텐츠라운지-대국민 공모전-'2023년 제1차 K-water 옥외글판 문구 공모'

| 결과발표 | 2023년 3월 예정 (수상자는 개별 통지)

| 시상내역 | 최우수작(1편) 50만원, 우수작(3편) 10만원 수여 ※ 제세공과금 수상자 부담



문의 K-water 옥외글판 담당자 ☎ 042-629-2865